

탈북청소년의 학교교육 적응을 위한 과학과 교수·학습 모형 개발에 대한 가능성 탐색

On the Possibility and Search of Development of Science Teaching & Learning Model for School Education Adaptation among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박명숙* · 안희수

(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현재 탈북자수가 증가하면서 학령기의 탈북청소년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남한과 사고체계와 교육 과정 및 교수·학습법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고, 탈북청소년들은 대부분 탈북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상당한 기간의 교육 공백기를 갖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탈북청소년들이 북한에서 받은 교육정도에 맞는 남한의 학교에 배정이 되더라도,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남한 사회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적인데 학교 교육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현재에도 문제가 되며 앞으로 사회인으로서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데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부적응의 결과가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탈북청소년들이 문화가 다른 남한에서 잘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는 학교교육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탈북청소년들은 같은 또래의 남한 학생들에 비하여 창의적 사고력과 학습능력이 부족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판단하기보다는 권위나 신념에 의해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며, 표현 방식의 차이에 익숙하지 않아 수업내용이나 문제의 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에서 주최하는 ‘한겨레계절학교’에서 탈북청소년들을 가르친 경험을 토대로 탈북청소년의 학교교육 적응을 위한 과학과 교수·학습 모형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주요어 : 탈북청소년, 학교교육 적응, 과학과 교수·학습 모형